

예수의 신앙

THE FAITH OF JESUS

196 :0.1

예수는 하느님에 대하여 고귀하고 진심으로의 신앙을 향유(享有)하였다. 그는 필사 실재의 일반적인 부침(浮沈)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신앙은 신성한 현존, 내재(內在)하는 조절자의 활동으로 태어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의 신앙은 전통적인 것 또는 단지 지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그리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

JESUS enjoyed a sublime and wholehearted faith in God. He experienced the ordinary ups and downs of mortal existence, but he never religiously doubted the certainty of God's watchcare and guidance. His faith was the outgrowth of the insight born of the activity of the divine presence, his indwelling Adjuster. His faith was neither traditional nor merely intellectual; it was wholly personal and purely spiritual.

196 :0.2

인간 예수는 하느님을 거룩하고 정의(正義)롭고 위대한 분일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든 신성의 속성들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써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예수의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살아 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일치하였다.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의 개념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성취하고 또한 모든 필사 창조체들이 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숭고한 체험의 관념으로 고양시키고

The human Jesus saw God as being holy, just, and great, as well as being true, beautiful, and good. All these attributes of divinity he focused in his mind as the "will of the Father in heaven." Jesus' God wa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Holy One of Israel" and "The living and loving Father in heaven." The concept of God as a Father was not original with Jesus, but he exalted and elevated the idea into a sublime experience by achieving a new revelation of God and by proclaiming that every mortal creature is a child of this Father of love, a son of God.

높였다.

196 :0.3

예수는 분투하는 혼이 우주와의 전쟁에서 그리고 적의에 차고 죄로 가득 찬 세상과의 사생결투에서 하듯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신앙에 단지 어려움 속에서 위로로 위협받는 절망에서 위안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신앙은 단지 즐겁지 못한 현실이나 혹은 삶의 슬픔들을 위한 환상(幻相)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필사 실재의 자연적 어려움과 현세적인 모순들에 바로 직면하여, 그는 최극의 평온과 하느님에 대한 명백한 신뢰를 체험하였으며 그리고, 신앙으로 하늘에 아버지의 바로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감격을 느꼈다. 그리고 이 승리한 신앙은 실제 영적 달성의 살아있는 체험이었다. 인간 체험의 가치들에 예수의 커다란 공헌은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관하여 많은 새로운 관념들을 계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새롭고 더 높은 유형의 **하느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을 장엄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실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우주의 모든 세상들 어디에서, 어느 한 필사자의 일생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인간 체험 속에서처럼 하느님이 그토록 **살아있는 실체**가 되신 적은 없었다.

196 :0.4

주(主)의 유란시아 일생 속에서, 지역

Jesus did not cling to faith in God as would a struggling soul at war with the universe and at death grips with a hostile and sinful world; he did not resort to faith merely as a consolation in the midst of difficulties or as a comfort in threatened despair; faith was not just an illusory compensation for the unpleasant realities and the sorrows of living. In the very face of all the natural difficulties and the temporal contradictions of mortal existence, he experienced the tranquillity of supreme and unquestioned trust in God and felt the tremendous thrill of living, by faith, in the very presence of the heavenly Father. And this triumphant faith was a living experience of actual spirit attainment. Jesus' great contribution to the values of human experience was not that he revealed so many new ideas about the Father in heaven, but rather that he so magnificently and humanly demonstrated a new and higher type of *living faith in God*. Never on all the worlds of this universe, in the life of any one mortal, did God ever become such a *living reality* as in the human experience of Jesus of Nazareth.

In the Master's life on Urantia, this

창조의 이 세계와 다른 모든 세계들은 새롭고 더 높은 유형의 종교, 우주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에 근거하고, 순수한 개인적 체험의 최극 권위에 의해 전적으로 확인된 종교를 발견한다. 예수의 이 살아있는 신앙은 지적(知的)인 반영 이상이었으며, 그리고 신비한 명상이 아니었다.

196 :0.5

신학은 신앙을 고정시키고, 정형화하고, 정의(定意)하고, 독단적으로 단정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일생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근본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순전히 영적이었다. 이 신앙은 전통에 대한 숭상이 아니었고, 그가 경건한 신조(信條)로 가졌던 단순한 지적 믿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붙잡은** 숭고한 체험이자 심오한 신념이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모든 것을-감싸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의심들도 절대적으로 날려버리고, 상충되는 모든 욕망을 실질적으로 파괴하였다. 아무 것도 이 열렬하고 숭고하며 확실한 신앙의 이 영적 정박지(碇泊地)로부터 그를 떼어놓을 수 없었다. 명백한 패배에 직면하거나 또는 실망과 위협적인 절망의 심한 고통 속에서조차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영적 불굴성(不屈性)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신성한 현존

and all other worlds of the local creation discover a new and higher type of religion, religion based on personal spiritual relations with the Universal Father and wholly validated by the supreme authority of genuine personal experience. This living faith of Jesus was more than an intellectual reflection, and it was not a mystic meditation.

Theology may fix, formulate, define, and dogmatize faith, but in the human life of Jesus faith was personal, living, original, spontaneous, and purely spiritual. This faith was not reverence for tradition nor a mere intellectual belief which he held as a sacred creed, but rather a sublime experience and a profound conviction which *securely held him*. His faith was so real and all-encompassing that it absolutely swept away any spiritual doubts and effectively destroyed every conflicting desire. Nothing was able to tear him away from the spiritual anchorage of this fervent, sublime, and undaunted faith. Even in the face of apparent defeat or in the throes of disappointment and threatening despair, he calmly stood in the divine presence free from fear and fully conscious of spiritual invincibility. Jesus enjoyed the invigorating assurance of the possession of unflinching faith, and in each of life's trying situations he unflinchingly exhibited an unquestioning loyalty to the Father's will. And this superb faith was undaunted even by the cruel and crushing threat of an ignominious death.

안에 차분하게 서 있었다. 예수는
위축되지 않는 신앙 소유의
활력을 불어넣는 확신을
향유하였으며, 그리고 일생의
시험적인 각각의 환경들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충성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신앙은 치욕스러운 죽음의
압도하는 위협에까지도 꺾여지지
않았다.

196 :0.6

종교의 특질에는, 강력한 영적
신앙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비참한 광신(狂信), 종교적
자기의 과장으로 직접 이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 영적
고양(高揚)은 하나님과 그의
개인적 체험의 전혀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인 혼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생활에 있어서 그의 특별한
신앙이나 영적 달성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In a religious genius, strong spiritual
faith so many times leads directly to
disastrous fanaticism, to exaggeration
of the religious ego, but it was not so
with Jesus. He was not unfavorably
affected in his practical life by his
extraordinary faith and spirit
attainment because this spiritual
exaltation was a wholly unconscious
and spontaneous soul expression of
his personal experience with God.

196 :0.7

예수의 온몸을-불태우고 그리고
불굴의 영적 신앙은 절대로
광신적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질적 그리고 평범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일생의 환경에서의 비례적인
가치에 대한 그의 잘-균형 잡힌
지적 판단들을 가지고 결코
벗어나려고 시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눈부시게
통합된 인간 개인성이었다; 그는
완전하게 증여된 신성한
존재였다; 그는 또한 이 땅에서

The all-consuming and indomitable
spiritual faith of Jesus never became
fanatical, for it never attempted to run
away with his well-balanced
intellectual judgments concerning the
proportional values of practical and
commonplace social, economic, and
moral life situations. The Son of Man
was a splendidly unified human
personality; he was a perfectly
endowed divine being; he was also
magnificently co-ordinated as a
combined human and divine being
functioning on earth as a single
personality. Always did the Master

단일 개인성으로 기능하는 병합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신성한 존재로서 장엄하게 합동되었다. 주(主)는 혼의 신앙과 성숙되는 체험의 지혜로운-평가를 항상 합동시키셨다. 개인적 신앙과 영적 소망 그리고 도덕적 헌신은 항상, 실제에 대한 예리한 깨달음과 모든 인간적 충실함—개인적 명예, 가족적 사랑, 종교적 의무, 사회적 의무,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을 성스럽게 하심과 조화롭게 연합함으로서 그로 인한 비할 데 없는 종교적 합일 안에 연관되어 있었다.

co-ordinate the faith of the soul with the wisdom-appraisals of seasoned experience. Personal faith, spiritual hope, and moral devotion were always correlated in a matchless religious unity of harmonious association with the keen realization of the reality and sacredness of all human loyalties -- personal honor, family love, religious obligation, social duty, and economic necessity.

196 :0.8

예수의 신앙은 모든 영적 가치들을 하느님의 왕국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는 “너희는 먼저 하늘의 왕국을 찾으라.”고 말씀하였다. 예수는 발전되고 이상적인 왕국의 동료관계로 “하느님의 뜻”의 성취와 달성을 보았다.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가장 핵심은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이었다. 이와 같이 왕국이 하느님의 뜻을 포함하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는 그것의 실현에 원인이 되도록, 놀랄만한 자아-망각(沒我)과 끝없는 열정으로 자신을 바치셨다. 그러나 모든 그의 극심한 임무와 그리고 그의 특별한 일생을 통하여 광신자들의 격분이나 종교적 이기주의자들의 피상적인

The faith of Jesus visualized all spirit values as being found in the kingdom of God; therefore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heaven." Jesus saw in the advanced and ideal fellowship of the kingdom the achievement and fulfillment of the "will of God." The very heart of the prayer which he taught his disciples was,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Having thus conceived of the kingdom as comprising the will of God, he devoted himself to the cause of its realization with amazing self-forgetfulness and unbounded enthusiasm. But in all his intense mission and throughout his extraordinary life there never appeared the fury of the fanatic nor the superficial frothiness of the religious egotist.

공허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

196 :0.9

주(主)의 일생 전체는 한결같이 이 살아있는 신앙, 이 숭고한 종교적 체험에 의해 조절되었다. 이 영적 태도는 그의 사고와 느낌, 그의 믿음과 기도, 그의 가르침과 설교들을 전적으로 지배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과 보장에 대한 아들의 이 개인적 신앙은 그의 독특한 일생에 영적 실체의 심오한 자질을 주었다. 그리고 아직, 신성과 가까운 관계의 이 깊은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인, 하나님의 갈릴리인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컬느냐?”라고 바로 응답하였다. 우리가 이와 같은 훌륭한 자아-망각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주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을 그렇게 충분히 나타내고 그리고 영역들의 필사자에게 그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발견하였는지 납득하기 시작한다.

The Master's entire life was consistently conditioned by this living faith, this sublime religious experience. This spiritual attitude wholly dominated his thinking and feeling, his believing and praying, his teaching and preaching. This personal faith of a son in the certainty and security of the guidance and protection of the heavenly Father imparted to his unique life a profound endowment of spiritual reality. And yet, despite this very deep consciousness of close relationship with divinity, this Galilean, God's Galilean, when addressed as Good Teacher, instantly replied, "Why do you call me good?" When we stand confronted by such splendid self-forgetfulness, we begin to understand how the Universal Father found it possible so fully to manifest himself to him and reveal himself through him to the mortals of the realms.

196 :0.10

예수는 그 영역의 사람으로서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큰 것; 신성한 뜻을 행하는 장엄한 봉사, 자신의 뜻을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가져다 드렸다. 예수는 언제나 일관되게 종교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지라는 의미에서 해석하였다. 주(主)의 생애를 공부할 때, 기도나 혹은 종교적 생활의 다른 면들에

Jesus brought to God, as a man of the realm, the greatest of all offerings: the consecration and dedication of his own will to the majestic service of doing the divine will. Jesus always and consistently interpreted religion wholly in terms of the Father's will. When you study the career of the Master, as concerns prayer or any other feature of the religious life, look not so much for what he taught as for

관하여, 그가 무엇을 가르쳤나를 보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를 바라보라. 예수는 종교적 의무로서 기도를 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진지한 표현, 혼의 충성에 대한 선언. 개인적 헌신에 대한 낭송, 감사의 표현, 감정적 긴장의 방지, 갈등의 예방, 지능의 고양(高揚), 욕망을 고귀하게 만듦, 도덕적 결정의 입증, 생각의 풍성함, 더욱 높은 성향의 활력화, 충동의 봉헌, 관점들의 명백함, 신앙의 선언, 의지의 초월적 양도, 자신감의 숭고한 단언, 용기의 계시, 발견의 선언, 최극 헌신의 고백, 봉헌의 당위성, 어려움에서의 조절기법, 그리고 이기심, 악,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 성향을 물리치려는 병합된 혼의 힘들의 힘찬 동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일생을 사셨으며, 그러한 기도와 함께 자신의 일생을 승리로 마치셨다. 그의 비교될 수 없는 종교적 일생의 비밀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이 의식(意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능적 기도와 진지한 경배—하느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의하여 얻었으며 인도됨이나, 음성이나, 상상력 또는 비상한 종교적 습관에 의해 얻으신 것이 아니었다.

what he did. Jesus never prayed as a religious duty. To him prayer was a sincere expression of spiritual attitude, a declaration of soul loyalty, a recital of personal devotion, an expression of thanksgiving, an avoidance of emotional tension, a prevention of conflict, an exaltation of intellection, an ennoblement of desire, a vindication of moral decision, an enrichment of thought, an invigoration of higher inclinations, a consecration of impulse, a clarification of viewpoint, a declaration of faith, a transcendental surrender of will, a sublime assertion of confidence, a revelation of courage, the proclamation of discovery, a confession of supreme devotion, the validation of consecration, a technique for the adjustment of difficulties, and the mighty mobilization of the combined soul powers to withstand all human tendencies toward selfishness, evil, and sin. He lived just such a life of prayerful consecra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and ended his life triumphantly with just such a prayer. The secret of his unparalleled religious life was this consciousness of the presence of God; and he attained it by intelligent prayer and sincere worship -- unbroken communion with God -- and not by leadings, voices, visions, or extraordinary religious practices.

196 :0.11

예수의 지상 일생 안에서 종교는 살아있는 체험, 영적

In the earthly life of Jesus, religion was a living experience, a direct and personal movement from spiritual

공경으로부터 실질적인 정의를 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 활동이었다. 예수의 신앙은 신성한 영의 초월적 열매들을 맺었다. 그의 신앙은 아이들의 것과 같이 미숙하거나 경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어린이 마음의 의심하지 않는 신뢰와 비슷하였다. 예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만큼이나 하느님을 신뢰하였다. 예수는 우주에 대한 심오한 자신감을 가졌다—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의 환경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주의 근본적인 선에 대한 예수의 전심어린 신앙은 지구 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어린아이의 신뢰와 매우 흡사하였다. 그는 어린아이가 그들의 땅에서의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지하였다, 그리고 그의 열렬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지나친 보호에 대한 확실성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회의(懷疑)로 인하여 심각하게 방해를 받지 않았다. 불신이 그의 일생의 자유롭고 근본적인 표현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그는 다 자란 어른의 건장하고 지적인 용기를 믿는 아이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낙천성과 병합하였다. 그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뢰의 절정으로 자랐다.

reverence to practical righteousness. The faith of Jesus bore the transcendent fruits of the divine spirit. His faith was not immature and credulous like that of a child, but in many ways it did resemble the unsuspecting trust of the child mind. Jesus trusted God much as the child trusts a parent. He had a profound confidence in the universe -- just such a trust as the child has in its parental environment. Jesus' wholehearted faith in the fundamental goodness of the universe very much resembled the child's trust in the security of its earthly surroundings. He depended on the heavenly Father as a child leans upon its earthly parent, and his fervent faith never for one moment doubted the certainty of the heavenly Father's overcare. He was not disturbed seriously by fears, doubts, and skepticism. Unbelief did not inhibit the free and original expression of his life. He combined the stalwart and intelligent courage of a full-grown man with the sincere and trusting optimism of a believing child. His faith grew to such heights of trust that it was devoid of fear.

순수성을 가졌다. 그의 신앙은 그렇게 절대적이고 의심이 없어서 다른 동료 존재들과의 만남에 대한 매력과 우주의 경이로움들에 반응하였다. 신성한 것에 대한 그의 신뢰감은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자신하였음으로 그것은 절대적 개인적 안전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져왔다. 그는 종교적 체험에서 주저하는 변명이 없었다. 충분히-자란 사람의 이 위대한 지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종교적 인식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서 최극을 지배하였다. 그가 언젠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예수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뜻으로도 **어린아이다운 것**이 아니다.

absolute and undoubting that it responded to the charm of the contact of fellow beings and to the wonders of the universe. His sense of dependence on the divine was so complete and so confident that it yielded the joy and the assurance of absolute personal security. There was no hesitating pretense in his religious experience. In this giant intellect of the full-grown man the faith of the child reigned supreme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ligious consciousness. It is not strange that he once said, "Except you become as a little child, you shall not enter the kingdom." Notwithstanding that Jesus' faith was *childlike*, it was in no sense *childish*.

196 :0.13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함께** 믿으라고, 하느님 사랑의 실체를 믿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관계에 대한 확신의 보장을 충만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였다. 주(主)는 모든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초월적 신앙을 충분히 나누어 가지기를 바라셨다. 예수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것**처럼** 믿으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장 비장하게 촉진하였다.

Jesus does not require his disciples to believe in him but rather to believe with him, believe in the reality of the love of God and in full confidence accept the security of the assurance of sonship with the heavenly Father. The Master desires that all his followers should fully share his transcendent faith. Jesus most touchingly challenged his followers, not only to believe *what* he believed, but also to believe *as* he believed. This is the full significance of his one supreme requirement, "Follow me."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의 한 가지 최극 요구의 총만한 의의(意義)이다.

196 :0.14

예수의 지상 일생 단 한 가지의 목적—아버지의 뜻을 행함, 인간의 일생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삶—에 바쳐졌다. 예수의 신앙은 믿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의 그것과 같이,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건하고 남자다운 결정을 내렸다, 수많은 실망들에 용감하게 대처하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단호히 극복하였으며, 의무의 엄격한 요구들에 망설임 없이 직면하였다. 예수가 믿었던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믿은 것처럼 믿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자신감이 요구되었다.

1. 예수—사람

196 :1.1

아버지의 뜻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예수의 헌신은 필사자의 결정과 인간 결심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러한 아낌없는 사랑의 증여에 전심으로 그 자신의 헌신이었다. 미가엘의 주권의 사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는 인간 예수를 사람들로 부터 떼어놓아서 안 된다. 주(主)는 하느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셨다; 그는 사람에게 속한다; 사람들은 그에 속한다. 종교가

Jesus' earthly life was devoted to one great purpose -- doing the Father's will, living the human life religiously and by faith. The faith of Jesus was trusting, like that of a child, but it was wholly free from presumption. He made robust and manly decisions, courageously faced manifold disappointments, resolutely surmounted extraordinary difficulties, and unflinchingly confronted the stern requirements of duty. It required a strong will and an unfailing confidence to believe what Jesus believed and as he believed.

1. JESUS -- THE MAN

Jesus' devotion to the Father's will and the service of man was even more than mortal decision and human determination; it was a wholehearted consecration of himself to such an unreserved bestowal of love. No matter how great the fact of the sovereignty of Michael, you must not take the human Jesus away from men. The Master has ascended on high as a man, as well as God; he belongs to men; men belong to him. How unfortunate that religion itself should be so misinterpreted as to take the human Jesus away from struggling

스스로, 분투하는
 필사자들로부터 인간 예수를
 떼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
 해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신성에 대한 토론들이
 나사렛 예수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며, 신앙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았고 행함을 성취하였다는
 구원의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는 이제까지 유란시아에
 살았던 최상의 참된
 신앙인이었다.

196 :1.2

19 세기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적
 교리 속에 그를 묻어놓은
 무덤으로부터, 인간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부활을 증언할 시기가
 되었다. 나사렛 예수가 영광된
 그리스도의 화려한 개념으로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시(이 책)를 통하여, 사람의 아들이
 전통적 신학의 무덤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
 살아 계신 예수로서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초월적인 봉사인가!
 그리스도교인의 신자들의
 형제관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사심 없는 봉사에
 전념하는 것에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그의 진정한
 일생에서의 실증 안에서 주(主)를
 “뒤 따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이, 신앙과 삶의 관행들을
 조정하는 것을 이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mortals! Let not the discussions of the
 humanity or the divinity of the Christ
 obscure the saving truth that Jesus of
 Nazareth was a religious man who, by
 faith, achieved the knowing and the
 doing of the will of God; he was the
 most truly religious man who has ever
 lived on Urantia.

The time is ripe to witness the
 figurative resurrection of the human
 Jesus from his burial tomb amidst the
 theological traditions and the religious
 dogmas of nineteen centuries. Jesus of
 Nazareth must not be longer
 sacrificed to even the splendid
 concept of the glorified Christ. What
 a transcendent service if, through this
 revelation, the Son of Man should be
 recovered from the tomb of traditional
 theology and be presented as the
 living Jesus to the church that bears
 his name, and to all other religions!
 Surely the Christian fellowship of
 believers will not hesitate to make
 such adjustments of faith and of
 practices of living as will enable it to
 "follow after" the Master in the
 demonstration of his real life of
 religious devotion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and of consecration to
 the unselfish service of man. Do
 professed Christians fear the exposure
 of a self-sufficient and unconsecrated
 fellowship of social respectability and
 selfish economic maladjustment?
 Does institutional Christianity fear the

공언된 그리스도교인 들이
사회적인 체면과 이기적인
경제적 조정불량의
자기만족적이고 비현신적인
친교의 노출을 두려워할까? 만약
갈릴리의 예수가 개인적인 종교적
삶의 이상(理想)으로써 필사
사람들의 마음과 혼 속에
원상으로 회복된다면, 제도화된
그리스도교는 전통적 성직 권위의
가능한 위험과, 혹은 심지어
전복을 두려워할까? 만약 예수의
살아있는 종교가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종교를 갑자기
대체한다면, 정말 그리스도교
문명의 사회적인 재조정들,
경제적 변환들, 도덕적
회춘(回春), 그리고 종교적
개편들이 격렬하고 그리고
혁명적이 될 것이다.

196 :1.3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종교적인 신앙을 개인적으로
공유하고, 사람을 위하여 사심
없이 봉사한 주(主)의 일생의
영(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수가
믿었던 것을 찾아내고, 그의
이상들을 발견하며, 그리고 그의
드높여진 일생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의 종교적
일생과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196 :1.4

평민들은 예수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possible jeopardy, or even the
overthrow, of traditional ecclesiastical
authority if the Jesus of Galilee is
reinstated in the minds and souls of
mortal men as the ideal of personal
religious living? Indeed, the social
readjustments, the economic
transformations, the moral
rejuvenations, and the religious
revisions of Christian civilization
would be drastic and revolutionary if
the living religion of Jesus should
suddenly supplant the theologic
religion about Jesus.

To "follow Jesus" means to
personally share his religious faith
and to enter into the spirit of the
Master's life of unselfish service for
man.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human living is to find out
what Jesus believed, to discover his
ideals, and to strive for the
achievement of his exalted life
purpose. Of all human knowledge,
that which is of greatest value is to
know the religious life of Jesus and
how he lived it.

The common people heard Jesus
gladly, and they will again respond to

진리들이 다시 세상에
선포된다면, 성화(聖化)된 종교적
동기를 지닌 그의 진지한 인간
일생의 발표에 그들은 다시 한 번
응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즐겁게 듣는 것은 그가 그들
중의 하나, 겸손한
보통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교사(教師)는 진실로 평범한
사람이었다.

196 :1.5

겉으로 나타난 육신으로 예수의
일생을 모방하는 것이 왕국을
믿는 자들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사람들을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믿는 것; 바로
그러한 그의 신앙을
나누어야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하여나 사람들의
형제신분에 대하여 논쟁한 적이
없었다; 그는 전자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예증이었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오한 실증이였다.

196 :1.6

사람들이 인간의
의식(意識)으로부터 신성한 것의
실현으로 진보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도 또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 본성의
의식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主)는 그의 필사 지성의 신앙과
내재하는 조절자의 활동들의
결합된 성취로 인간으로부터
신성으로의 이 위대한 상승을
이루셨다. 신성의 전체성을
달성한 사실- 실현화는 (이 기간

the presentation of his sincere human
life of consecrated religious
motivation if such truths shall again
be proclaimed to the world. The
people heard him gladly because he
was one of them, an unpretentious
layman; the world's greatest religious
teacher was indeed a layman.

It should not be the aim of kingdom
believers literally to imitate the
outward life of Jesus in the flesh but
rather to share his faith; to trust God
as he trusted God and to believe in
men as he believed in men. Jesus
never argued about either the
fatherhood of God or the brotherhood
of men; he was a living illustration of
the one and a profound demonstration
of the other.

Just as men must progres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human to the
realization of the divine, so did Jesus
ascend from the nature of man to the
consciousness of the nature of God.
And the Master made this great ascent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by the
conjoint achievement of the faith of
his mortal intellect and the acts of his
indwelling Adjuster. The fact-
realization of the attainment of
totality of divinity (all the while fully
conscious of the reality of humanity)
was attended by seven stages of faith

내내 인간성의 실체를 충분히 의식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성화되는 신앙의 의식의 일곱 단계들을 따랐다. 이러한 점진적인 자아-실현의 단계들은 주(主)의 증여 체험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로 구별 지어졌다:

1. 생각조절자의 도착.
2. 그가 12 살 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나타난 임마누엘의 사자(使者).
3. 그의 세례에 부수된 명시들.
4. 변화 산에서의 체험들.
5. 모론시아 부활.
6. 영의 상승.
7. 그의 우주의 무제한적 주권을 수여한 낙원천국 아버지의 최종 포옹.

2. 예수의 종교

196 :2.1

언젠가는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우리들 신앙의 저자(著者)이며 완성자인, 예수의 순수한 종교적 가르침들로 돌아가려는 개혁이 충분히 깊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에 대한 종교를 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consciousness of progressive divinization. These stages of progressive self-realization were marked off by the following extraordinary events in the Master's bestowal experience:

1. The arrival of the Thought Adjuster.
2. The messenger of Immanuel who appeared to him at Jerusalem when he was about twelve years old.
3. The manifestations attendant upon his baptism.
4. The experience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5. The morontia resurrection.
6. The spirit ascension.
7. The final embrace of the Paradise Father, conferring unlimited sovereignty of his universe.

2. THE RELIGION OF JESUS

Some day a reformation in the Christian church may strike deep enough to get back to the unadulterated religious teachings of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You may *preach* a religion about Jesus, but, perforce, you must *live* the religion of Jesus. In the enthusiasm of Pentecost, Peter

예수의 종교를 살아야만 한다. 오순절의 영광 속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종교, 부활하고 그리고 영광된 그리스도의 종교를 시작하였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 새로운 복음을 그리스도교, 그 자신의 신학적 견해들을 구체화하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그의 개인적 체험을 묘사한 종교로 변환시켰다. 왕국 복음은 갈릴리 예수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기초하였다; 그리스도교는 거의 오로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종교 체험에 기초하였다. 신약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의미심장하고 영감을 주는 예수의 종교적 일생에 대한 묘사보다는, 바울의 종교적 체험에 대한 토론과 그의 종교적 신념들에 대한 묘사에 치우쳐져 있다. 이 진술에 오직 두드러진 예외들은,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뿐이다. 베드로마저도 그의 글 속에서 단지 한번 그의 주(主)의 개인적인 종교적 일생에 눈길을 돌렸을 뿐이었다. 신약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교 문서이지만, 다만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unintentionally inaugurated a new religion, the religion of the risen and glorified Christ. The Apostle Paul later on transformed this new gospel into Christianity, a religion embodying his own theologic views and portraying his own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Jesus of the Damascus road. The gospel of the kingdom is founded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Jesus of Galilee; Christianity is founded almost exclusively on the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Apostle Paul. Almost the whole of the New Testament is devoted, not to the portrayal of the significant and inspiring religious life of Jesus, but to a discussion of Paul's religious experience and to a portrayal of his personal religious convictions. The only notable exceptions to this statement, aside from certain parts of Matthew, Mark, and Luke, are the Book of Hebrews and the Epistle of James. Even Peter, in his writing, only once reverted to the personal religious life of his Master. The New Testament is a superb Christian document, but it is only meagerly Jesusonian.

196 :2.2

육신으로서의 예수의 일생은 원시적 경외와 인간적 공경의 초기 관념에서부터 개인적인 영적 교제의 시기들을 통과하여 그가 최종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가 되는 의식의 발전되고

Jesus' life in the flesh portrays a transcendent religious growth from the early ideas of primitive awe and human reverence up through years of personal spiritual communion until he finally arrived at that advanced and exalted status of the consciousness of

고양된 지위에 도달하기까지의 초월적인 종교적 성장을 묘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는 한 번의 짧은 일생동안에, 사람이 지상에서 시작하여 낙원천국 이전 삶의 연속적인 단계들의 영 훈련 학교들에서 그의 오랜 체재를 마친 후에만 일반적으로 성취하는, 종교적 영적 진보의 체험을 가로질렀다. 예수는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에 대한 신앙 확산들의 순수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그의 신성한 본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숭고한 영적 절정에까지, 그리고 우주 경영에 대한 우주 아버지와 의 긴밀한 연합의 의식까지 진보하였다. 그는 그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저절로 그가 즉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니라”라고 말하도록 한 그러한 필자사로서 의존하는 겸손한 지위로부터, “너희 중의 누가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고 외치도록 그를 인도한 성취된 신성의 그 숭고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였다.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것까지의 이 진보하는 상승은 전적으로 필사자 성취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신성을 이루었을 때, 그는 아직 동일한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이자 하느님의 아들, 이었다.

his oneness with the Father. And thus, in one short life, did Jesus traverse that experience of religious spiritual progression which man begins on earth and ordinarily achieves only at the conclusion of his long sojourn in the spirit training schools of the successive levels of the pre-Paradise career. Jesus progressed from a purely human consciousness of the faith certainties of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to the sublime spiritual heights of the positive realization of his divine nature and to the consciousness of his close association with the Universal Father in the management of a universe. He progressed from the humble status of mortal dependence which prompted him spontaneously to say to the one who called him Good Teacher, "Why do you call me good? None is good but God," to that sublime consciousness of achieved divinity which led him to exclaim, "Which one of you convicts me of sin?" And this progressing ascent from the human to the divine was an exclusively mortal achievement. And when he had thus attained divinity, he was still the same human Jesus, the Son of Man as well as the Son of God.

196 :2.3

마가와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가 신성한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Mark, Matthew, and Luke retain something of the picture of the human Jesus as he engaged in the superb

행하려고 장엄한 투쟁에 임하고 있었을 때의 인간 예수의 모습을 조금 간직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신성의 총만한 의식으로 지상을 거닐었던 승리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主)의 일생을 공부한 사람들이 저지른 큰 오류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전반적으로 인간으로 생각하였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오로지 신성으로만 생각하였다. 그의 모든 체험을 통하여 그는 진실로 인간인 동시에 신성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196 :2.4

그러나 가장 큰 과오는, 인간 예수가 종교를 가지신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예수가 (그리스도) 하룻밤 사이에 종교로 되어버린 것이다. 바울의 그리스도교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숭배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개인적 종교 신앙의 용기와 그의 내재하는 조절자의 영웅적 자질로, 인간성의 낮은 차원들에서부터 신성과 하나가 되기까지 상승하였으며, 그리하여 모든 필사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인간성으로부터 신성으로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되신 갈릴리의 투쟁하는 용감한 인간 예수를 거의 잃어버렸다. 영성(靈性)의 모든 단계들과 온 세상들에 있는 필사자들은 예수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그들이 가장 낮은 영 차원들에서 가장 높은

struggle to ascertain the divine will and to do that will. John presents a picture of the triumphant Jesus as he walked on earth in the full consciousness of divinity. The great mistake that has been made by those who have studied the Master's life is that some have conceived of him as entirely human, while others have thought of him as only divine. Throughout his entire experience he was truly both human and divine, even as he yet is.

But the greatest mistake was made in that, while the human Jesus was recognized as *having* a religion, the divine Jesus (Christ) almost overnight became a religion. Paul's Christianity made sure of the adoration of the divine Christ, but it almost wholly lost sight of the struggling and valiant human Jesus of Galilee, who, by the valor of his personal religious faith and the heroism of his indwelling Adjuster, ascended from the lowly levels of humanity to become one with divinity, thus becoming the new and living way whereby all mortals may so ascend from humanity to divinity. Mortals in all stages of spirituality and on all worlds may find in the personal life of Jesus that which will strengthen and inspire them as they progress from the lowest spirit levels up to the highest divine valu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ll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신성한 가치들까지, 모든 개인적인 종교 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보할 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196 :2.5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저자들은 부활한 예수의 신성을 가장 깊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늘왕국을 더할 나위 없이 이루기 위하여 그의 즉각적인 땅으로의 재림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믿었다.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이러한 강한 신앙은 주(主)의 순전한 인간 체험들과 속성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들을 기록에서 생략하려는 추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체 그리스도교 운동은 나사렛 예수의 인간 모습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 영광되고 그리고 곧 재림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로 향하였다.

At the time of the writing of the New Testament, the authors not only most profoundly believed in the divinity of the risen Christ, but they also devotedly and sincerely believed in his immediate return to earth to consummate the heavenly kingdom. This strong faith in the Lord's immediate return had much to do with the tendency to omit from the record those references which portrayed the purely human experiences and attributes of the Master. The whole Christian movement tended away from the human picture of Jesus of Nazareth toward the exaltation of the risen Christ, the glorified and soon-returning Lord Jesus Christ.

196 :2.6

예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 형제신분에 봉사하는 개인적 체험의 종교를 기초하였다; 바울은 영광된 예수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형제신분은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종교를 기초하였다. 예수의 증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은 그의 신성의-인간의 일생 속에 잠재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지상의 일생에 따로 떼어놓을 수 없도록 묶여있고 최초의 왕국 복음에 영광스럽게 밝혀져 있었음으로 주(主)의 인간적이고 그리고

Jesus founded the religion of personal experience in doing the will of God and serving the human brotherhood; Paul founded a religion in which the glorified Jesus became the object of worship and the brotherhood consisted of fellow believers in the divine Christ. In the bestowal of Jesus these two concepts were potential in his divine-human life, and it is indeed a pity that his followers failed to create a unified religion which might have given proper recognition to both the human and the divine natures of the Master as they were inseparably bound up in his earth life and so gloriously set forth in the original

신성한 두개의 본성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의 추종자들이 통합된 종교의 창조에 실패한 것은 정말 슬프다.

196 :2.7

너희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헌신적인 종교가였다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의 일부 강한 표현들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정화(淨化)된 필사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남김없이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명백한 강한 말씀들 중 많은 것들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명령보다 신앙의 개인적 고백과 헌신의 서약이었다. 바로 이러한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과 사심 없는 헌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의 짧은 일생에 인간 마음을 정복하고 그토록 엄청난 진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의 선언들의 많은 것들은 그가 모든 그의 추종자들에게 요구한 것이라기보다 그 자신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고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왕국의 당위성에 대한 그의 헌신에, 예수는 그가 건너온 모든 다리들을 불태웠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모든 장애물들을 희생시켰다.

196 :2.8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개 진지하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였으며; 부자들은 대개 방종하고 신앙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신앙심 없는

gospel of the kingdom.

You would be neither shocked nor disturbed by some of Jesus' strong pronouncements if you would only remember that he was the world's most wholehearted and devoted religionist. He was a wholly consecrated mortal, unreservedly dedicated to doing his Father's will. Many of his apparently hard sayings were more of a personal confession of faith and a pledge of devotion than commands to his followers. And it was this very singleness of purpose and unselfish devotion that enabled him to effect such extraordinary progress in the conquest of the human mind in one short life. Many of his declarat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fession of what he demanded of himself rather than what he required of all his followers. In his devotion to the cause of the kingdom, Jesus burned all bridges behind him; he sacrificed all hindrances to the doing of his Father's will.

Jesus blessed the poor because they were usually sincere and pious; he condemned the rich because they were usually wanton and irreligious. He would equally condemn the irreligious pauper and commend the consecrated and worshipful man of

가난뱅이를 똑같이 비난하였을
것이고 헌신적인 신앙심 깊은
부자를 칭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196 :2.9

예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인도하였으며; 미신적인
금기사항에 노예가 된
상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며,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는
지상의 일생으로부터의
도피하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육신으로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행하는 기법을
터득하였다. 그는 현실 세계 한
복판에서 이상적인 종교적
일생을 성취하였다. 예수는 바울이
지닌 인간에 대한 염세적 견해를
갖지 않았다. 주(主)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들로 보셨고, 생존을
선택한 그들 앞에 펼쳐질
장엄하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
보셨다. 그는 도덕적으로
회의적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악하기보다는 악하다고
보았으며, 타락하기보다는
마음이 산란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었으며 그의
형제들이었다.

196 :2.10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영원 안에서 그들

wealth.

Jesus led men to feel at home in the
world; he delivered them from the
slavery of taboo and taught them that
the world was not fundamentally evil.
He did not long to escape from his
earthly life; he mastered a technique
of acceptably doing the Father's will
while in the flesh. He attained an
idealistic religious life in the very
midst of a realistic world. Jesus did
not share Paul's pessimistic view of
humankind. The Master looked upon
men as the sons of God and foresaw a
magnificent and eternal future for
those who chose survival. He was not
a moral skeptic; he viewed man
positively, not negatively. He saw
most men as weak rather than wicked,
more distraught than depraved. But no
matter what their status, they were all
God's children and his brethren.

He taught men to place a high value
upon themselves in time and in

자신들에게 높은 가치를 두라고 가르쳤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정한 이 높은 평가 때문에, 인간을 위한 끊임없는 봉사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려고 하였다. 유한 존재에 대한 이 무한한 가치가 그의 종교에서 생명 요소인 황금률을 만들었다. 어떤 필사자가 예수가 가진 그에게 대한 특별한 신앙에 의해 높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96 :2.11

예수는 사회 발전을 위한 아무런 규율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종교는 전적으로 개별적인 체험이다. 사회의 가장 진보된 성취의 궁극적 목표도 하나님의 아버지신분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한 사람들과 예수의 형제신분을 초월하기를 바랄 수 없다. 모든 사회적 달성에 대한 이상(理想)은 이 신성한 왕국의 도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3. 종교의 최극위

196 :3.1

개인적, 영적 종교 체험은 대부분의 필사자의 어려움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문제들의 효과적인 분류자, 평가자, 그리고 조절자이다. 종교는 인간의 근심들을 없애거나 파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을 용해하고, 흡수하고, 밝혀주고, 그리고 초월한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의 요구들에 효과 있게

eternity. Because of this high estimate which Jesus placed upon men, he was willing to spend himself in the unremitting service of humankind. And it was this infinite worth of the finite that made the golden rule a vital factor in his religion. What mortal can fail to be uplifted by the extraordinary faith Jesus has in him?

Jesus offered no rules for social advancement; his was a religious mission, and religion is an exclusively individual experience. The ultimate goal of society's most advanced achievement can never hope to transcend Jesus' brotherhood of men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fatherhood of God. The ideal of all social attainment can be realized only in the coming of this divine kingdom.

3. THE SUPREMACY OF RELIGION

Personal, spiritual religious experience is an efficient solvent for most mortal difficulties; it is an effective sorter, evaluator, and adjuster of all human problems. Religion does not remove or destroy human troubles, but it does dissolve, absorb, illuminate, and transcend them. True religion unifies the personality for effective adjustment to all mortal requirements. Religious faith -- the positive leading of the

적응하도록 개인성을 통일한다. 종교적 신념 —내재하는 신성한 존재의 적극적인 인도— 은 하느님-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의 첫째 원인을 그것으로 아는 지적인 논리와, 그리고 이 첫째 원인이 그 분 이며, 예수의 복음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며, 인간 구원의 개인적 하느님이라고 단언하는 혼의 적극적 선언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틈에 다리를 놓게 한다.

196 :3.2 우주 실체에는 꼭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 사실, 관념, 그리고 관계이다. 종교 의식은 이 실체들을 과학, 철학, 그리고 진리로 인지한다. 철학은 이 활동들을—물리적 실체, 지적 실체, 영적 실체—이성, 지혜, 그리고 신앙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 실체들을 물질, 의미, 그리고 가치로 명명하려는 습관에 있다.

196 :3.3 실체에 대한 진보적인 이해는 하느님께 접근하는 것에 상응한다. 하느님의 발견, 실체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함은 자아-완성—자아-전체성, 자아-총체성—을 체험하는 것에 상응한다. 전체적 실체의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충만한 인식, 하느님을-아는 체험의 최종이다.

196 :3.4 인간 일생의 충만한 총합은 사람은 사실에 의해 교육되고, 지혜에 의해 고상해지며, 종교적 신앙에 의해 구원되고—정당화된다는 앎이다.

indwelling divine presence -- unfailingly enables the God-knowing man to bridge that gulf existing between the intellectual logic which recognizes the Universal First Cause as *It* and those positive affirmations of the soul which aver this First Cause is *He*, the heavenly Father of Jesus' gospel, the personal God of human salvation.

There are just three elements in universal reality: fact, idea, and relation. The religious consciousness identifies these realities as science, philosophy, and truth. Philosophy would be inclined to view these activities as reason, wisdom, and faith -- physical reality, intellectual reality, and spiritual reality. We are in the habit of designating these realities as thing, meaning, and value.

The progressive comprehension of reality is the equivalent of approaching God. The finding of God, the consciousness of identity with reality, is the equivalent of the experiencing of self-completion -- self-entirety, self-totality. The experiencing of total reality is the full realization of God, the finality of the God-knowing experience.

The full summation of human life is the knowledge that man is educated by fact, ennobled by wisdom, and saved -- justified -- by religious faith.

- 196 :3.5 물질적인 확실성은 과학의 논리에 있다; 도덕적인 확실성은 철학의 지혜에 있으며; 영적 확실성은 참된 종교적 체험의 진리에 있다.
- Physical certainty consists in the logic of science; moral certainty, in the wisdom of philosophy; spiritual certainty, in the truth of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 196 :3.6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의 높은 차원들과 가치들의 신성에 상응하는 영역들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의 핵—신성한 현존의 조절자—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 이 영 내주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개의 증거들이 있다:
- The mind of man can attain high levels of spiritual insight and corresponding spheres of divinity of values because it is not wholly material. There is a spirit nucleus in the mind of man -- the Adjuster of the divine presence. There are three separate evidences of this spirit indwelling of the human mind:
- 196 :3.7 1. 인도주의적 동료관계—사랑. 순전히 동물적인 마음이 자기 방어를 위하여 집단을 이룰 수는 있다, 그러나 영이 내주하는 지성만이 사심 없이 애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1. Humanitarian fellowship -- love. The purely animal mind may be gregarious for self-protection, but only the spirit-indwelt intellect is unselfishly altruistic and unconditionally loving.
- 196 :3.8 2. 우주의 해석—지혜. 우주가 개별존재에게 친밀하다는 것을 영이-내주하는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다.
2. Interpretation of the universe -- wisdom. Only the spirit-indwelt mind can comprehend that the universe is friendly to the individual.
- 196 :3.9 3. 일생의 영적인 평가—경배. 오직 영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신성한 현존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신성의 미리 맛보는 것 안에서 보다 충만한 체험을 얻으려고 한다.
3. Spiritual evaluation of life -- worship. Only the spirit-indwelt man can realize the divine presence and seek to attain a fuller experience in and with this foretaste of divinity.
- 196 :3.10 인간 마음은 참된 가치들을 창조하지 않는다; 인간의 체험은 우주적 통찰력을 주지 않는다. 통찰력, 도덕적 가치들을 인식과 영적 의미들을 식별함에 대하여
- The human mind does not create real values; human experience does not yield universe insight. Concerning insight, the recognition of moral values and the discernment of

인간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발견하고, 인식하며, 해석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다.

spiritual meanings, all that the human mind can do is to discover, recognize, interpret, and *choose*.

196 :3.11 우주의 도덕적 가치들은 필사자 마음의 세 가지 기본 판단들, 혹은 선택들에 의하여 지적 소유들이 될 수 있다:

The moral values of the universe become intellectual possessions by the exercise of the three basic judgments, or choices, of the mortal mind:

1. 자아의-판단—도덕적 선택.
2. 사회적-판단—윤리적 선택.
3. 하느님의-판단—종교적 선택.

1. Self-judgment -- moral choice.
2. Social-judgment -- ethical choice.
3. God-judgment -- religious choice.

196 :3.12 이렇게 모든 인간 진보는 연합된 계시적 진화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Thus it appears that all human progress is effected by a technique of conjoint *revelational evolution*.

196 :3.13 사랑에 빠진 신성한 연인이 사람 속에 살지 않으면, 사심 없이 그리고 영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해석자가 마음속에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우주의 합일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 평가자가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사람은 도저히 도덕적 가치를 평가할 수도 없고 영적 의미들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연인은 무한한 사랑의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내려온다; 이 해석자는 우주적 합일성의 한 부분이다; 이 평가자는 신성하고 영원한 실체의 모든 절대 가치들의 중심 그리고 근원의 자녀이다.

Unless a divine lover lived in man, he could not unselfishly and spiritually love. Unless an interpreter lived in the mind, man could not truly realize the unity of the universe. Unless an evaluator dwelt with man, he could not possibly appraise moral values and recognize spiritual meanings. And this lover hails from the very source of infinite love; this interpreter is a part of Universal Unity; this evaluator is the child of the Center and Source of all absolute values of divine and eternal reality.

196 :3.14 종교적 의미—영적 통찰력—를 갖는 도덕적 평가는 선과 악, 진리와 실수, 물질과 영, 인간과 신성한 것,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개별적 선택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존은 영적 가치 분류자—내주하는 해석자이며 통합자—에 의해 선정된 그러한 가치들을 선택하는 일에 인간의 의지를 바치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 개인적 종교 체험은 두 위상으로 구성된다; 인간 마음속에서의 발견과 내재하는 신성한 영에 의한 계시이다. 지나친 억지이론을 통하여 또는 공언된 종교가들의 비종교적 행위의 결과로 한 사람, 심지어 사람들의 한 세대가 그들에게 내주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그들의 노력들을 유보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들은 신성한 계시 안에서 진보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내주하는 생각조절자의 존재와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196 :3.15 내주하는 신성한 실체에 대한 심오한 체험은 물리적 자연 과학들의 조잡한 물질주의적 방법을 언제까지나 초월한다. 너희는 영적 기쁨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너희는 사랑을 저울에 달 수 없다: 너희는 도덕적 가치들 측량할 수 없다: 또한 영적 경배의 본질특성을 평가할 수

Moral evaluation with a religious meaning -- spiritual insight -- connotes the individual's choice between good and evil, truth and error, material and spiritual, human and divine, time and eternity. Human survival is in great measure dependent on consecrating the human will to the choosing of those values selected by this spirit-value sorter -- the indwelling interpreter and unifier. Personal religious experience consists in two phases: discovery in the human mind and revelation by the indwelling divine spirit. Through oversophistication or as a result of the irreligious conduct of professed religionists, a man, or even a generation of men, may elect to suspend their efforts to discover the God who indwells them; they may fail to progress in and attain the divine revelation. But such attitudes of spiritual nonprogression cannot long persist because of the presence and influence of the indwelling Thought Adjusters.

This profound experience of the reality of the divine indwelling forever transcends the crude materialistic technique of the physical sciences. You cannot put spiritual joy under a microscope; you cannot weigh love in a balance; you cannot measure moral values; neither can you estimate the quality of spiritual worship.

없다.

196 :3.16 히브리인들은 도덕적으로 절정에 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미(美)의 종교를 발전시켰다; 바울과 그의 의논 상대자들은 신앙, 소망, 그리고 박애의 종교를 기초하였다. 예수는 사랑의 종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의 보호, 인간 형제신분의 봉사에 이 사랑을 나누는 결과로 얻어지는 즐거움과 만족을 보여주었고 예시하였다.

The Hebrews had a religion of moral sublimity; the Greeks evolved a religion of beauty; Paul and his conferees founded a religion of faith, hope, and charity. Jesus revealed and exemplified a religion of love: security in the Father's love, with joy and satisfaction consequent upon sharing this love in the service of the human brotherhood.

196 :3.17 사람은 사려 깊은 도덕적 선택을 할 때마다, 그는 그의 혼 속에 새로운 신성한 침투를 즉시 체험한다. 도덕적 선택은 종교를 외부의 조건들에 대한 내적인 반응의 동기로 형성한다. 그러나 그러한 참된 종교는 순전히 주관적인 체험은 아니다. 그것은 우주와 그 조물주-전체적인 객관성에 대한 의미 있고 그리고 지능적인 반응에 몰두되어 있는 개별존재의 주관성을 의미한다.

Every time man makes a reflective moral choice, he immediately experiences a new divine invasion of his soul. Moral choosing constitutes religion as the motive of inner response to outer conditions. But such a real religion is not a purely subjective experience. It signifies the whole of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engaged in a meaningful and intelligent response to total objectivity -- the universe and its Maker.

196 :3.18 사랑하고 사랑받는 절묘하고 초월적인 체험은, 너무 순수하게 주관적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리적 환상은 아니다. 필사 존재들과 연합되어 있는 어떤 진실로 신성하고 객관적인 실체, 생각조절자는 배타적인 주관적 현상으로서 명백하게 인간 관찰에 대하여 기능하고 있다. 가장 높은 객관적 실체, 하느님과 사람의 접촉은 오직 그를 알고, 그를 경배하고, 그와의 아들관계를 깨달는 순수한

The exquisite and transcendent experience of loving and being loved is not just a psychic illusion because it is so purely subjective. The one truly divine and objective reality that is associated with mortal beings, the Thought Adjuster, functions to human observation apparently as an exclusively subjective phenomenon. Man's contact with the highest objective reality, God, is only through the purely subjective experience of knowing him, of worshiping him, of realizing sonship with him.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196 :3.19 진정한 종교적 경배는 자아를- 스스로 속이는 헛된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다. 경배는 신성하게 실제적인 것, 실체의 바로 그 근원과의 개인적 교제이다. 사람은 경배로서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결국에는 **최상**에 이른다.

True religious worship is not a futile monologue of self-deception. Worship is a personal communion with that which is divinely real, with that which is the very source of reality. Man aspires by worship to be better and thereby eventually attains the *best*.

196 :3.20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에 대한 이상화(理想化)와 시도되는 봉사는 순수한 종교 체험, —영적(靈的) 실체—의 대용품이 아니다. 심리학과 이상주의는 종교적 실체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인간 지성의 구체적 투사 활동들이 거짓의 하느님들—사람 형상의 하느님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참된 하느님을—의식함은 그러한 기원(起源)을 가지지 않는다. 하느님을—의식함은 내주하는 영 속에 살고 있다. 사람의 종교 체계들 대부분은 인간 지능이 꾸며서 갖춘 것에서 왔다, 그러나 하느님을—의식함은 종교적 노예제도의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체계들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

The idealization and attempted service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not a substitute for genuine religious experience -- spiritual reality. Psychology and idealism are not the equivalent of religious reality. The projections of the human intellect may indeed originate false gods -- gods in man's image -- but the true God-consciousness does not have such an origin. The God-consciousness is resident in the indwelling spirit. Many of the religious systems of man come from the formulations of the human intellect, but the God-consciousness is not necessarily a part of these grotesque systems of religious slavery.

196 :3.21 하느님은 단순히 사람의 이상주의의 창안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이러한 초(超)동물적인 통찰력들과 가치들의 바로 그 근원이다. 하느님은 인간들의 진, 선, 미의 개념을 통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설이 아니다; 그는

God is not the mere invention of man's idealism; he is the very source of all such superanimal insights and values. God is not a hypothesis formulated to unify the human concepts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he is the personality of love

그로부터 모든 이 우주적
현시들이 기원된 사랑의
개인성이다. 인간 세상의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은
낙원천국의 실제들을 향하여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체험의
증가하는 영성(靈性)에 의해
통합된다.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의 합일은
오로지 하나님을-아는 개인성의
영적 체험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196 :3.22

도덕은 조절자의 내적 현존에 대한
개인적 인식인, 개인적인 하나님-
의식에 꼭 필요한 선재하는
토양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은
종교적 체험과 결국 생겨나는
영적 통찰력의 근원은 아니다.
도덕의 본성은 초(超)동물적이다
그러나 영에 종속적이다. 도덕은
의무의 인식, 옳고 그른 실재에
대한 깨달음과 동등하다.
모론시아가 개인성 달성의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사이에서
작용하듯이 도덕의 범주는
동물과 인간 유형의 마음 사이에
개입한다.

196 :3.23

진화하는 마음은 법과 도덕과
윤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된 영, 내주하는 조절자는
진화하는 인간 마음에게 입법자,
진실되고,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의 아버지-근원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러한 계몽된 사람은
종교를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고도 모험적인 추구를
시작하도록 영적으로 장비가

from whom all of these universe
manifestations are derived. The truth,
beauty, and goodness of man's world
are unified by the increasing
spirituality of the experience of
mortals ascending toward Paradise
realities. The unity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can only be realized in
the spiritual experience of the God-
knowing personality.

Morality is the essential pre-existent
soil of personal God-consciousness,
the personal realization of the
Adjuster's inner presence, but such
morality is not the source of religious
experience and the resultant spiritual
insight. The moral nature is
superanimal but subspiritual. Morality
is equivalent to the recognition of
duty, the realization of the existence
of right and wrong. The moral zone
intervenes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types of mind as morontia
functions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spiritual spheres of personality
attainment.

The evolutionary mind is able to
discover law, morals, and ethics; but
the bestowed spirit, the indwelling
Adjuster, reveals to the evolving
human mind the lawgiver, the Father-
source of all that is true, beautiful,
and good; and such an illuminated
man has a religion and is spiritually
equipped to begin the long and
adventurous search for God.

갖추어져 있다.

196 :3.24 도덕은 영적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전적으로 순전히 인간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모든 도덕적 가치들을 높이고 그들을 좀더 의미 있게 만든다. 종교가 없는 도덕은 궁극적 선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자체의 도덕적 가치들의 생존을 준비하는데도 실패한다. 종교는 도덕이 인식하고 인정한 모든 것의 향상, 찬미, 그리고 확실한 생존을 제공한다.

Morality is not necessarily spiritual; it may be wholly and purely human, albeit real religion enhances all moral values, makes them more meaningful. Morality without religion fails to reveal ultimate goodness, and it also fails to provide for the survival of even its own moral values. Religion provides for the enhancement, glorification, and assured survival of everything morality recognizes and approves.

196 :3.25 종교는 과학과 예술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 위에 있지만, 그들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인간 체험 속에서 서로 확고하게 연관되어 있다. 종교는 필사자 본성 안에서 사람의 최극 체험이다, 그러나 유한한 언어는 신학이 실제 종교 체험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한다.

Religion stands above science, art, philosophy, ethics, and morals, but not independent of them. They are all indissolubly interrelated in human experience, personal and social. Religion is man's supreme experience in the mortal nature, but finite language makes it forever impossible for theology ever adequately to depict real religious experience.

196 :3.26 종교적 통찰력은 실패를 더 높은 영원과 새로운 결심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우주 상승 시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동기화이다. 그러나 진리(眞), 아름다움(美), 선(善)이 제외된 사랑은 단지 감상, 철학적 왜곡, 심리적 착각, 영적 기만이다. 사랑은 모론시아와 영적 진보의 연속되는 차원들에서 항상 다시 정의(定意)되어야 한다.

Religious insight possesses the power of turning defeat into higher desires and new determinations. Love is the highest motivation which man may utilize in his universe ascent. But love, divested of truth, beauty, and goodness, is only a sentiment, a philosophic distortion, a psychic illusion, a spiritual deception. Love must always be redefined on successive levels of morontia and spirit progression.

196 :3.27 예술은 사람이 물질적 환경 속에서 미(美)의 결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그것은 모론시아 차원으로 향한 몸짓이다. 과학은 물질적 우주의 명백한 수수께끼들을 풀려는 사람의 노력이다. 철학은 인간의 체험을 통일하려는 사람의 시도이다. 종교는 사람의 최극 몸짓, 최종의 실체를 향한 그의 장엄한 기지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와 같이 되려는 그의 결심이다.

Art results from man's attempt to escape from the lack of beauty in his material environment; it is a gesture toward the morontia level. Science is man's effort to solve the apparent riddles of the material universe. Philosophy is man's attempt at the unification of human experience. Religion is man's supreme gesture, his magnificent reach for final reality, his determination to find God and to be like him.

196 :3.28 종교 체험의 영역에서는 영적 가능성이 잠재적 실체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충동은 심리적 환상이 아니다. 우주에 대한 사람의 모든 낭만적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진실이다

In the realm of religious experience, spiritual possibility is potential reality. Man's forward spiritual urge is not a psychic illusion. All of man's universe romancing may not be fact, but much, very much, is truth.

196 :3.29 어떤 사람들의 삶은 단지 성공적이었다는 낮은 차원으로 내리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고상하다. 동물은 그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그의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 방법으로 신성한 사랑의 이 통찰력을 통하여 현재의 물질적 세상의 한계들을 탈출한다. 이 사랑의 개념은 사람의 혼 속에 진리(眞), 아름다움(美) 그리고 선(善)을 찾으려는 초(超)동물적 노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발견하면, 그는 그들의 품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 그는 그들을 살고 그리고 정의(正義)를

Some men's lives are too great and noble to descend to the low level of being merely successful. The animal must adapt itself to the environment, but the religious man transcends his environment and in this way escapes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material world through this insight of divine love. This concept of love generates in the soul of man that superanimal effort to find truth, beauty, and goodness; and when he does find them, he is glorified in their embrace; he is consumed with the desire to live them, to do righteousness.

행하려는 열망으로 소진된다.

196 :3.30 좌절하지 말라; 인간의 진화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Be not discouraged; human evolution is still in progress, and the revelation of God to the world, in and through Jesus, shall not fail.

196 :3.31 현대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거하는 신성한 관찰자와 좀더 나은 교제를 이룩하는 것이다. 육신으로 사람의 가장 큰 모험은, 영-의식—신성한 존재와의 접촉—의 경계점에 도달하려는 전심의 노력으로 태생적 혼-의식의 희미한 영역을 통과하여 자아-의식의 경계들을 전진시키려는 균형이 잘 잡히고 건전한 노력 속에 있다. 그러한 체험은 하나님을-의식함, 하나님을 아는 종교적 체험의 이전(以前)-실재의 진리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체험을 형성한다. 그러한 영-의식은 하나님과 아들관계의 실제성에 대한 지식과 동등하다. 달리 말하자면, 아들관계의 확신은 신앙의 체험이다.

The great challenge to modern man is to achieve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divine Monitor that dwells within the human mind. Man's greatest adventure in the flesh consists in the well-balanced and sane effort to advance the borders of self-consciousness out through the dim realms of embryonic soul-consciousness in a wholehearted effort to reach the borderland of spirit-consciousness -- contact with the divine presence. Such an experience constitutes God-consciousness, an experience mightily confirmative of the pre-existent truth of the religious experience of knowing God. Such spirit-consciousness is the equivalent of the knowledge of the actuality of sonship with God. Otherwise, the assurance of sonship is the experience of faith.

196 :3.32 그리고 하나님을-의식함은 자아가 우주와의, 그리고 영적 실체의 그것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집대성과 동등하다. 그 어떤 가치에서도 영적 내용만은 불멸이다. 인간의 체험에서도 진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것은 사멸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And God-consciousness is equivalent to the integration of the self with the universe, and on its highest levels of spiritual reality. Only the spirit content of any value is imperishable. Even that which is true, beautiful, and good may not perish in human experience. If man does not choose to survive, then does the surviving Adjuster conserve those realities born of love and nurtured in service. And

태어나고 봉사로서 키워진 그
실체들을 생존하는 조절자가
보존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주 아버지의 일부분이다. 아버지는
살아 계신 사랑이시며, 아버지의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은 그의 아들의
아들들—필사 사람들—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완료된 지금, 아버지라는 관념은
아직도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높은 개념이다.

all these things are a part of the
Universal Father. The Father is living
love, and this life of the Father is in
his Sons. And the spirit of the Father
is in his Son's sons -- mortal men.
When all is said and done, the Father
idea is still the highest human concept
of God.